

충동은 파괴적인 자연과 기이하게 공명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사춘기 소년 소녀의 걱정과 고통뿐 아니라, 라 투르 부인이 끝내 떨쳐내지 못한 유럽사회의 편견, 궁핍에 대한 걱정, 그리고 본능의 무절제함에 자신을 내맡겼다는 자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는 사랑의 증표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다지지만, 염려와, 염려를 가장한 야심에 사로잡힌 어른들의 논리에 결국 그 마음은 희생되고 만다. 이 희생에 외해에서 밀려드는 자연의 파괴적인 힘이 다시 한번 공명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속절없는 자연이다. 그래서 생피에르가 그리는 자연은 눈부시게 풍요로운 만큼, 잔인하고 가혹하다.

사실 이러한 자연의 두 얼굴은 “전원생활의 행복과 벋사람들의 불행”을 대조적으로 바라보는 비르지니를 통해 예고되는 것이기도 하다. 비르지니에게 바다는, 자연이 인간의 뒤편으로 내어준 영역을 떠나 탐욕으로 자신의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오가는, 일종의 두려운 바깥이다. 반면 두 아이가 나고 자란 분지는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닫힌 세계이자 자족적인 경제 공동체,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와 가정의 행복을 간직한 일종의 은신처다. 이곳에서 유럽 문명의 병폐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융합하며 순수한 본성 그대로 살아가던 폴과 비르지니에게는 돈벌이나 유산 상속을 구실 삼아 바깥으로 여행을 떠날 필요도, 행복을 버릴 이 유도 없는 것이다. 18세기의 많은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유